

‘송영길 둔기 습격’ 70대 “한미훈련 불만”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서울경찰청, 대선 관련 320건 수사 진행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현재 관련 자료 증거를 분석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표삿TV’ 운영자로 추정되는 표모(70)씨는 지난 7일 낮 12시5분께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하기 전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송 대표 머리를 검은색 비닐에 싸인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표씨는 송 대표의 머리를 가격한 이

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특수상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표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특별한 정황은 없다”며 “본인은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하고 난 다음 협조적이지 않다. 분석 자료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20대 대선 관련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사건은 366건(640명)이며, 320건(68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으며,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운



동맹해 등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표씨를 포함해 2명을 선거운동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투표운동원을 폭행한 1명과 우

편함에 있는 공보물을 절취한 1명을 포함해 이번 대선 관련 선거 사건으로 총 4명을 구속했다.

김재환기자



강진경찰, 안전한 강진 만들기를 위한 읍·면 순회간담회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최근 ‘안전한 강진만들기’를 위해 작전면 방문을 시작으로 마을이장단과 함께하는 순회간담회 일정을 시작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동부소방, 관내 산불 취약지역 기동순찰 등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인 대형산불 및 소방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관내 산불 취약지역 기동순찰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산불 증가’ 선제적 대응 나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화재위험경보 해제 시까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이슬기자



국립공원공단, ESG 경영파트너와 국립공원 해양정화의 날 추진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최근 공단직원 및 자원활동가, 현대상호중공업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해양정화의 날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병무청, 사랑의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병무청 ‘행복더하기 봉사단’은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7일 올해 첫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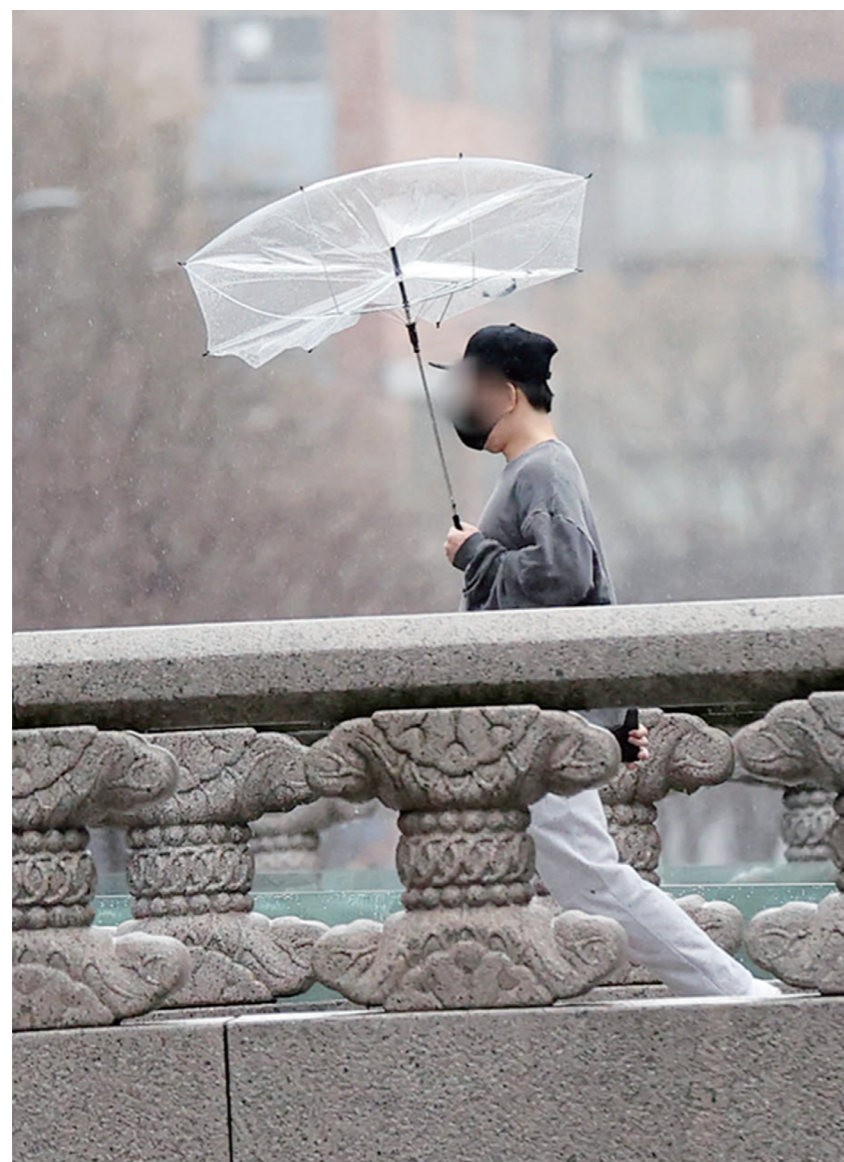
서선욱기자



해양경찰연구센터, 기름 시료 전시관 개관식 개최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센터장 서경목)에서 교육원장과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름 시료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바람에 날리는 우산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

전북 전주에서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사망한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40대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남편은 사실상 관계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을 것을 강요하며 낙태약을 직접 구매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지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아내 B(20대)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남자 아이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 아내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이슬비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HDC 직원 5명 구속영장

수사본부 구속영장 신청→검찰 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붕괴사고 수사 두 달여 만이다.

14일 광주 신축아파트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사전 혐의를 마친 검찰이 수사서류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위원회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PIT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심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동바리조차 제대로 설

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16개 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서는 연속 충격 하중, 무량관 공법의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지적됐다. 최상층부터 무너져 내리는 수직 하중에 추락 높이·속도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누적 파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수사본부가 자문한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전문가도 ‘무게 1t 구조물이 3m 아래로 떨어질 때는 3.8t의 하중이 된다’고 추산했다.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관 공법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눈 오는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강행하고 보양 천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품질 관리 부실도 연쇄 붕괴의 한 요인으로 제기됐다. 또 콘크리트 시공 품질도 부분적 불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측정에선 일부 층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KDS14 20 01)상 24MPa의 75~85%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본부는 진술·압수한 자료·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종합,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 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사고직후 꾸러진 수사본부는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인허가 비리 유무·불법 하도급 부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하청업체 법인 포함)을 입건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선욱기자